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루계 제2719호】

주체111(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음력 9월 1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민사랑을 싣고 출렁이는 만복의 바다

무릇 사람들은 무한대하게 펼쳐진 광경을 바다에 비겨 말하군 한다.

얼마전 공화국의 황해남도 해주광장과 주변도로일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배려하여주신 현대적인 농기계바다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져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것이 나라를 지키는것이라고, 신심을 가지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농업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조치에 의하여 펼쳐진 농기계바다였다.

드넓은 전야를 뒤덮게 될 농기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뇌리에 못잊을 추억들이 파도쳐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펼쳐진 과수바다, 벼바다, 물고기바다, 남새바다…

주체105(2016)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인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농장을 찾으시였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사과바다를 기쁨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가지마다에 붉은 사과알들이 주렁져 철령아래가 온통 붉게 보이는데 장관이라고, 이런 풍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옛날에는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던 고산땅이였다. 그러한 이 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황홀한 사과바다를 펼쳐주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만이 아니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과일군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과수바다가 펼쳐졌다.

인민의 기쁨이 물결치는 과수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가 밀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여 향기로운 열매를 맺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물고기대풍, 물고기바다도 펼치였다.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두앞에 펼쳐진 하륙장에 이르시였을 때 거기에서는 고기배에서 퍼내는 물고기가 수송관을 따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있었다.

이 광경에서 만족한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야말로 물고기바다가 펼쳐졌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랭동저장고마다에 천정이 닿도록,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이 가득 쌓아놓은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쓸어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는 내가 부모없는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사업소이라고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아 좋아하는 아이들과 로인들의 얼굴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후 원수님께서는 이 사업소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 도처에 나라의 수산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개건하여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변모시켜주시여 해마다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로 흐뭇한 이채어경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은 황금의 벼바다도 펼치였다.

몇해전 어느한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시였다.

새벽에 내린 비로 질벅하게 젖은 포전에까지 들어가시여 농작물의 상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자혁명을 하여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낼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다음해에도 이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날 오래도록 풍년든 포전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전들에서 들려오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정말 좋다고, 설레이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만풍년의 노래소리이고 사회주의승리의 개가이며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남새바다도 펼쳐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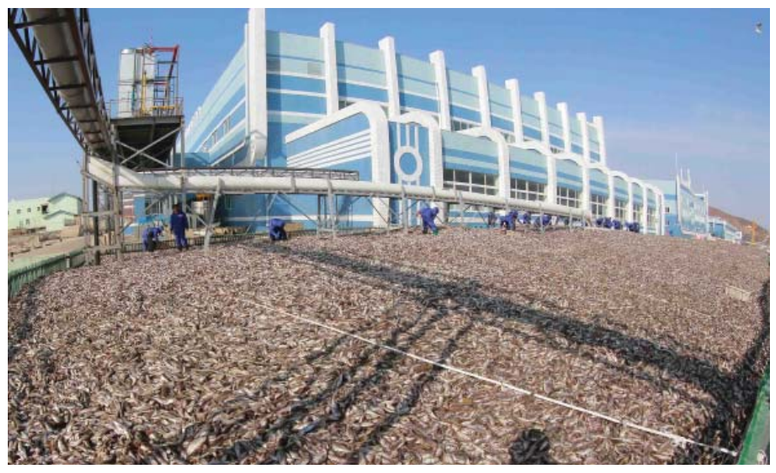
주체107(2018)년 7월중순 어느 일요일 숨막힐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경북도 경성군에 자리잡고있는 어느한 인민군부대의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대규모온실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우리모두 이 명당자리를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경성군 중평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에 일떠세워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할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지금 함경남도에 희한한 남새바다를 펼칠 련포온실농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정녕 이 땅우에 펼쳐진 희한한 바다들은 공화국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헌신의 세계가 펼친 인민사랑의 바다, 만복의 바다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 집짐승종자관리법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기대응법에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위기발생시에 리용할 예비물자조성을 잘하고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수매법은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식물새품종권의 신청과 심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식물새품종보호법에, 집짐승종자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관리와 리용등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집짐승종자관리법에 반영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새품종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짐승종자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개천절행사 진행

개천절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겸 서기국장, 박명철,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조국을 자주의 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락원으로 건설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불세출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천만자식들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

《우리 어머니》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명칭도, 추구하는 리념도 제각각인 정당들이 있다. 공통적인것은 그 어느 당이나 자기 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당이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국민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화려하고 달콤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당들을 쳐다보는 인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하고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존재를 마치는 당들도 적지 않다.

세상에 당은 많아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심장의 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당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이 바로 마치와 낫과 붓을 붉은기에 당마크로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되여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노래가 특별히 많다.

《당은 나의 어머니》, 《심장아 말해다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가사와 곡이 나오고 전 인민적인 가요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당이기때문이다. 어머니가 없다면 태여날수도, 살뜰한 보살핌의 손길속에 성장할수도 없듯이 조선로동당이 없으면 참다운 삶, 아름다운 미래도 없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는 신성한 그 이름으로 부르며 안기고 따르는것이다.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은 한집안의 뜨락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라는 성스럽고 크나큰 《어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다 보살펴주고 힘겨울수록 더 따뜻이 위해주고 길을 곧추 가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준다.

이런 고마운 당, 참된 운명의 보호자를 왜 온 나라 인민들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받들고 따르지 않으랴.

당의 모습은 그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로동당이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는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기때문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여주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주체52(1963)년 12월 황해북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그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전 솜옷도 입지 못하고 놀던 아이들을 만나시였던 때의 일을 더듬으시며 인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이 자기들의 어머니이기때문이라고, 이름그대로 어머니당인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것을 보고도 본체만체하고서야 어떻게 어머니당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당의 운명과 전도는 당을 창건하고 이끄는 령도자의 위업계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어머니당으로서의 성격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강령적로작들에서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해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온 나라 인민들이 축원의 인사를 보내는 뜻깊은 생신날에도 오로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2월 일군들에게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일군들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중의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 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밥그릇에 마음을 쓰듯 정성을 쏟아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오늘도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고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며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며 당을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활동하며 투쟁하는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여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더욱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당을 어머니라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며 인민의 믿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값진 재부로 새겨안으시고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자신께서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한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인민을 위해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 세계 유일무이한 당으로 더욱 빛나고있는것이다.

당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면 인민은 이 세상 끝까지 따른다.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가운데는 이런 노래도 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여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
치리라
아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여

이것이 공화국인민들모두가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고백이다.

오늘날 조선로동당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따라할수도 없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스스럼없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 품에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고있으며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필승의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치고있다.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이 세상 한끝이라도 가야 한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모두의 심장의 맹세이고 당이 바란다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기상이다.

이 땅 어디서나 당의 부름에 심장을 내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령도자의 사상과 뜻으로만 심장을 불태우며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만 받들고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이것이 필승불패하는 조선로동당의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인민의 복리증진은 가장 중차대한 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 나는 그저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 …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대중과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이룬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값높고 숭고한 이름으로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며 영원히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녀야 한다

언제인가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데 대하여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는것이 어머니의 성품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티없이 깨끗하고 웅심깊으며 진실하다. 그래서 자식들은 기쁠 때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찾는것이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일렁이였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라는 말속에는 자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이 헤아릴수 없이 크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긴다고, 일군들이 이러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

주체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얼마 앞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모든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조선로동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본사기자

지방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진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공화국에서 농촌진흥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 시, 군을 비롯한 지방이 몰라보게 변모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기계농사 좋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받들고 온 나라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해 충천한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속에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 대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5 500대의 농기계들을 도안의 농장들에 배려해주시였던것이다.

지난 9월 25일 해주시의 광장과 주변도로에는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꽉 들어차 도가 생겨 처음 보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졌다.

농기계들을 줄지어 세운 부지면적만 하여도 축구경기장 8개의 면적에 달하는 6만여㎡, 한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 화물자동차에 싣는다면 3천여대!

백가지 농사일중에 바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있으랴만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야말로 제일 시간을 다투고 품이 많이 드는 영농공정이다. 모내기보다 몇곱절 더 품이 드는 가을걷이시기에 제일 그리운것이 바로 농기계이다.

바로 그러한 때 수백대도 아니고 수천대의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였으니 고마운 그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흥겹게 농사를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자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는것은 알고있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줄을 몰랐다고, 정말 이 은덕을 세월이 간들 잊을수 없다고 격정을 터치는 황해남도의 인민들.

지금 황금이삭 물결치는 황남의 드넓은 전야마다에서는 현대적인 농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여기는 벽성군 서원농장포전, 이곳에서도 새 농기계로 영농작업을 하는 기쁨이 한껏 넘치고있다. 수확기들이 나갈 때마다 벼가 삼대넘어 가듯한다.

얼마후 기계화작업반장이 손을 흔들며 웨친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벼가을걷이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소.》

농장원들속에서 일시에 환성이 터져오른다.

《기계농사 좋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농기계가 제일이다.》

농장원들 누구나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일손을 다그친다.

협동벌마다에 넘치는 흥겨운 노래소리는 수확기의 동음과 함께 기계로 농사짓는 황금벌, 사회주의농촌의 교향곡이 되여 울려퍼지고있다. 드넓은 황남의 대지가 변된것은 어려울수록 근로인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가슴뜨거운 현실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위대한 근로인민의 삶의 요람인가를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시련의 광풍이 모질게 불어칠수록 천만자식모두를 더 따뜻이 품어주고 위해주는 고마운 제도를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정담아 부르며 성실한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지키고 빛내여가고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을 둘러보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한지에서 떨며 정부를 원망하고 삶을 한탄하는 불행한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올해 2월중순부터 3월중순사이 남조선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산불은 2만 4 000ha의 산림과 수많은 살림집들을 불태웠다.

대규모산불이 가져다준 재난으로 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지만 《정부》가 대책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고작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알량한 선심뿐이였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당국의 처사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을 호소하고있는가.

《〈정부〉는 우리에게 빚을 내여 불탄 집을 다시 지으라고 한다.》, 《〈정부〉가 꾸어준 돈은 17년동안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고령층이 어떻게 이 빚을 갚을수 있느냐.》, 《결국 갚지도 못할 빚으로 집을 짓는것이고 이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빚이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고통과 절망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남조선에서는 련이어 들이닥친 폭우로 하여 9일 하루에만도 수십명의 사망자와 1 490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4 535개의 공공 및 개인시설들이 침수되거나 붕락, 파괴되였으며 특히 서울시내 지하주택들에서 살던 주민들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사현장을 찾아간 윤석열역도를 비롯한 정객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왜 빨리 피하지 못했는가?》고 황당한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줴쳐대고 린접부근의 식당에 몰려가 장시간 술판, 먹자판을 벌려놓아 울분에 찬 주민들의 가슴아픈 상처를 란도질하였다.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비관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나라의 은덕으로 사랑의 집에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집을 헐어 호화주택들을 짓고 부동산투기업자들이 폭리를 볼 때 공화국에서는 수령의 저택자리에 수백수천만금을 들여도 살수 없는 인민의 별천지가 일떠서고 근로하는 인민들이 황홀한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는 전설 아닌 이 전설.

어찌하여 이 행성우에는 이토록 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재난의 피해는 같이 입었건만,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과 남이건만 판이하게 갈라진 두 사회의 현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훌륭하며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한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살림집들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당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와 같은 로동자가정에 훌륭한 새집이 무상으로 차례질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정말 인민의 세상,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격정을 터치면서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근로인민의 참다운 어머니당, 로동당만을 굳게 믿고 따를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고있다.

이것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펼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고 사회주의조선의 진짜 강대성인것이다.

쓰고살 집이 있고 찾아들 거처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보금자리로 되는것은 아니다.

존엄과 권리를 주고 보살펴주며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과 락원을 안겨주는 근로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의 품을 떠나 어찌 그 무슨 보금자리에 대해 말할수 있으랴.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세상, 그 품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볼수록 한없이 친근하고 인자하신 자애로운 영상이 태양의 모습으로 어려온다.

그렇다.

온 세상을 밝혀주고 만물을 꽃피워주는 따사로운 태양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은 진정 공화국의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행복의 보금자리, 영원한 삶의 품이다.

김철진

《김화군제품이 또 없습니까?》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하여 기세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 김화군에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새로운 지방공업혁명의 봉화가 타오른 김화군에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중앙식료공장 못지 않게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군식료공장의 자동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에서는 맛좋은 간장, 된장, 기름, 사탕, 과자, 산과실단물, 빵 등 갖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져나오고 번듯하게 꾸려진 옷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피복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환경보호형, 절약형으로 꾸려진 종이공장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필기종이, 위생종이, 학습장을 비롯한 종이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으며 각종 비누, 수지그릇류, 목제품, 초물제품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장의 제품들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상점마다에 자기 고장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맛좋은 식료품들과 질좋은 소비품들이 그득히 쌓여있어 주민들이 아무때나 찾아와 자기 군의 상표를 단 상품들을 사가고 이곳 지방공업공장들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각지에서 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원산시에서 진행된 강원도생활필수품전시회에서 김화군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갖가지 제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김화군제품에 대한 소문은 날개라도 돋친듯 퍼져 전시회장을 찾는 참관자수는 나날이 늘어났다. 원산시와 린접한 문천시, 안변군의 주민들까지 김화군제품들을 찾았다.

《김화군제품이 또 없습니까?》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농사를 더 잘 지어 보답할 일념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도처에 일떠서는 선경마을들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진흥하는 새시대를 열어가고있는 공화국의 각지에서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각 도, 시, 군들에서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맛이 나고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만세대의 농촌살림집에 대한 골조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골조공사를 끝낸 많은 시, 군들에서는 내외부마감미장과 울타리공사, 지붕공사, 전기 및 상하수도망공사를 다그치고있다.

도, 시, 군들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생산기지를 꾸리고 지방의 자원으로 질좋은 건재품들을 적극 개발하여 리용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는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마감건재들을 개발생산하고있으며 평안북도에서도 지방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건재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지방이 변하는 새 생활의 숨결을 체감하며 모든 지방들이 흥하게 될 래일을 기쁘게 그려보았다.

김화군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방공업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본보기적실체로서 나라의 지방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고있다.

농촌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얼마전 청단군 금학지구와 황주군 장천리, 연산군 공포리에 특색있게 설계된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문화회관, 진료소, 약국, 탁아소 등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여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온 나라의 모든 시, 군들을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변시키는것은 지방건설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로 되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공상도, 점령 못할 고지도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따라 온 나라의 모든 지방이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행복의 별천지로 변모될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홍범식

보금자리에 비낀 판이한 두 현실

집은 인간의 안식처이고 한 가정의 요람이며 생활과 웃음이 꽃펴나는 터전이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둥지없는 새처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나라없는 설음, 부모없는 설음과 함께 집없는 설음을 제일 큰 설음으로 간주해왔다. 그래서 《어려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라는 말도 생겨났으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집없는 설음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인 려명거리와 인민의 리상거리인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소리치며 일떠서고 삼지연시를 비롯한 지방의 이르는 곳마다에 문화적이며 리상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온 나라 방방곡곡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여가고 자연의 재난이 휩쓸었던 지역들이 축복받은 락원으로 전

부패한 제도의 산물—《지방소멸》위기

지금 남조선에서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떠오르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농촌지역들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심화되여 지방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판매액이 높은 1 000여개의 기업들중 743개가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몰려있는것으로 하여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 자리를 잡아야 살아갈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을 떠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방들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로인들만 남아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농촌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지방의 교육조건과 보건 및 문화환경 등 생활형편이 한심한것과도 관련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들은 교육조건이나 생활환경이 서울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락후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교육격차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서 학생들의 퇴학비률이 3.2%인데 비해 지방대학에서는 5%를 넘고있으며 직업을 얻는 비률도 지방대학출신들은 대도시지역의 대학출신보다 낮다고 한다.

보건환경을 놓고보아도 인구 1 000명당 의사수는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집에서 종합병원까지의 평균거리도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또한 도시에 비해 지방들에서는 집에서 문화시설이 있는데까지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문화수준도 크게 떨어지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대도시로 주민들이 몰려들고있고 지방이 소멸될 위기가 심화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군지역들은 이미 대부분 소멸될 위험에 처해있는 단계이고 그러한 위험이 시지역들에까지 확대되고있어 30년후에는 많은 시, 군, 구가 소멸될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가운데 108곳, 3 500여개의 읍, 면, 동가운데 1 79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소멸》위기는 특히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로인들만 남은 농촌에서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태풍과 장마, 악성전염병 등 여러가지 재난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날을 따라 더해만 가고있다.

여기에 당국의 비호밑에 각종 《보조금》까지 받으며 지방으로 쓸어들어오는 값싼 수입농산물들은 농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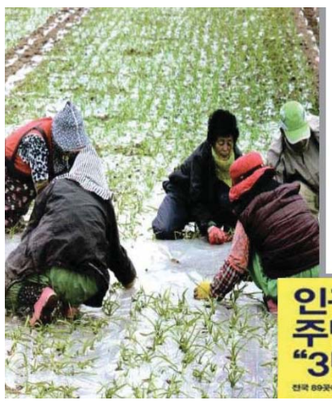
지난해 남조선에서 진행된 농민총궐기대회에서 터져나온 원한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저곡가적폐》, 《수입개방적폐》,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무시적폐》가 농민들을 짓누르고있다,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다짐하였다.

지방의 소멸은 곧 남조선사회를 전면적붕괴에로 떠미는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지역들사이의 불균형, 《지방소멸》은 막을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다.

리관철



인구감소지역 주민 45% "3년 안에 이주"

전국 89곳에 거주하는 600명 설문조사, 2030세대 표적인터뷰조사

독자문답

재카나다동포 김건일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견지하고있는 건설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속에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희한한 건축물들이 연해연방 솟아오르는 눈부신 기적,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서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을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제시해주시였다.

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우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주체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말에는 주체적건축창조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것이 기본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또한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높은 민족적자존심으로 건축에서도 세계를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이 내세우는 요구이다.

건축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때 민족성이 살아나고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건축물을 창조할수 있으며 건축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도 공화국이 내세우는 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은 건설을 끊임없는 발전에로 떠미는 추동력이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최근년간 건축창조에서 이룩된 성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건설의 선행공정이며 작전도인 설계로부터 시공과 건재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들이 진행되고 건설현장들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창안도입되여 건설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현실은 공화국의 건설분야에서 확립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땅에 일떠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물들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될 공화국의 양양한 미래를 보여주며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과 총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속에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으며 교수, 박사,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들도 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며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75(1986)년 11월 조국에서 진행된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된 7명의 재일동포대의원들가운데는 해외에서 오래동안 문학창작활동을 해온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이였던 허남기선생도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한달 앞둔 그해 10월중순 어느날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후보자명단에 총련문예동위원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총련에서 그가 오래동안 앓고있는 병에 로쇠까지 겹쳐 몸져누워있는것을 고려하여 대의원후보자명단에 넣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에서 그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앓고있기때문에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대의원후보자명단에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는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총련간부들중의 한사람이라고, 지난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부르시여 조국에서 병치료까지 하여주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허남기선생이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께서는 동무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집필사업에서 이룩한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는 여러 차례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몸을 추세우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가 병치료로 조국에 올 때 안해와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오도록 해주시고 경치좋은 조용한 휴양소에 숙소까지 잡아주시였을뿐 아니라 전문의사와 간호원, 보장성원들까지 따로 붙여주시여 마음껏 병치료를 받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날의 뜨거운 사랑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조국의 작가들의 이름을 외우시며 그들도 10여년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기만 하였지만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그대로 두고 보살펴주었다고 하시면서 허남기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있다고 해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계속 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알려 그의 이름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명단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총련의 한 일군을 변함없이 믿고 내세워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과 깊이를 알수 없는 고결한 의리에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허남기선생은 또다시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게 되였던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 박충우, 한동성, 강추련을 비롯한 총련일군들도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어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적사랑으로 안아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오늘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총련의 부흥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한 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회 조직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지난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깊이 연구하며 실천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연구회조직과 관련한 모임이 얼마전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성원들과 조선대학교와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신보사 등의 관계부문 일군들과 법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진길상참사가 연구회의 조직목적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였다.

그는 연구회의 조직목적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조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자는데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총련의 권리부문사업에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기 위한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리태일부교수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경위와 그 의의, 특징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고 그 서문에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원호에 관한 내용이 명기된 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해외동포정책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구현으로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차별정책을 반대배격하고 재일동포들을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라고 하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동포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며 래년 2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 1돐을 맞으며 학습회를 개최하는 문제 등이 토의결정되였다.

본사기자

애국애족의 넋은 새세대들에게도

❖ 앞선 단위의 경험을 본받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교또부본부 일군들은 어느날 《조선신보》를 읽던중 한 기사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기사에는 동포어린이들의 민족성을 키워주는 사업과 학생인입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의 사업경험이 소개되여있었다.

교또부본부에서는 즉시 가나가와현본부와 련계하여 그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이루어진것이 얼마전 총련 교또조선초급학교와 교또조선제2초급학교에서 진행된 학령전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였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머지않아 민족교육의 대문에 들어서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노래춤무대를 펼치였다.

동심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놀이들이 진행되고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흥성이는 마당에서 어린 참관자들은 시종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화목한 정이 오가고 활기에 넘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민족교육의 현실을 다소나마 체험할수 있었다.

부모들의 감동과 기쁨도 컸다. 많은 동포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워 진행한 행사는 커다란 실효를 거두었다.

❖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지성

얼마전 총련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에서 성대한 운동회가 진행되였다.

공화국기를 높이 추켜든 소년단위원장을 선두로 중급부, 초급부학생들과 유치반원아들이 행진하는 모습은 참으로 씩씩하였다.

학생전원이 출연한 집단체조는 이역의 칼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애국애족의 넋을 간직한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려는 새세대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재미나는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학생들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여 치렬한 분위기속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응원소리로 운동장은 떠나갈듯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직원들의 얼굴에는 보람의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이번 운동회를 준비하는데서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컸다.

애국의 역군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학교의 자랑찬 현실을 과시한 운동회는 동포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종합문화공연
《종달새》중에서 (2022년 9월)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련북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목사 (3)

주체70(1981)년 7월 3일 나라일에 그토록 다망하신 속에서도 김성락선생의 소원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현관문밖까지 나오시여 선생에게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따뜻이 포옹해주시였다.

이어 김성락선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응접실에서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선생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아 먼길을 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선생의 조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애국지사! 얼마나 고귀한 부름인가.

그이의 과분한 평가에 김성락선생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김성락선생과 오랜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시였다.

시종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친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김성락선생은 자기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사대의식이 밑뿌리채 뒤흔들리는것을 느끼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나라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저들의 세계지배정책실현의 디딤돌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숭미사대에 물젖어 한생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머리를 때렸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확신하게 되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여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성락선생을 오찬회장으로 이끄시고 한 종교인의 신앙심에 대해서까지 헤아려보시며 식전기도를 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온갖 극진한 환대를 받은 선생은 이번에 주석님을 만나뵙고보니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한몸바칠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인품과 넓은 포옹력, 사리정연한 말씀앞에서 나름대로 일생동안 굳혀온 김성락선생의 반공자세도, 오해의 감정도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버리고말았던것이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적은 힘이나마 여생을 바칠 결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선생의 정신세계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평양을 떠나던 날 일체 보도를 내지 않겠다던 당초의 립장을 철회하고 스스로 출발성명을 공식 발표하였다.

단 한번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선생은 반공에서 련공에로의 사상전환, 인생전환을 결심한것이다.

그 나날 최덕신선생과 김성락회장과의 감격적인 상봉도 마련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래동안 공화국과 담을 쌓고있던 아메리카주와 서유럽의 교포계에서는 련북합작, 련공단합의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해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고 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동경은 전례없이 높아갔다.

반공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보수정객들도, 한생을 예수의 교리만 절대화하던 종교인들도 《북을 락원으로 꽃피운 위대한 주체사상이 공산주의라면 나도 이제부터 공산주의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련공단합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였다.

이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에 의해 반공조류는 걷잡을수 없이 밀려나고 민족대단결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큰 대하를 이루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7)

《대홍》호를 강제검색하려다가 당한 수치와 참패

1992년 2월, 강재를 싣고 남포항을 떠나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를 향해 항해하고있던 공화국의 화물선 《대홍》호가 페르샤만을 가까이하고있을 때 느닷없이 미국이 나서서 생트집을 걸어왔다. 《대홍》호가 미싸일과 그 생산설비들을 싣고 간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배를 억류하여 검색하겠다는것이였다.

미국대통령, 미중앙정보국장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나서서 북조선이 중근동지역에 미싸일을 전개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떠벌이였다. 미국방장관이라는자는 《미해군은 명령만 내리면 〈스쿠드-C〉미싸일을 싣고 이란이나 수리아로 가는것으로 믿어지는 북조선의 화물선을 맞받아나갈 준비가 되여있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화물선이 통과하게 될 해역에 수십척의 군함과 비행기를 출동시켜 정세를 긴장시켰다.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할것인가 아니면 항해를 포기하고 되돌아서는가 하는 첨예한 상태가 조성되였다.

당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홍》호를 강제검색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자주적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날강도적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그 배가 강재를 실었든 미싸일을 실었든 미국이 상관할바가 아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된 대이라크금수조치리행과 국제미싸일통제기술협약을 걸고 《대홍》호를 검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고 파렴치한짓이다, 우리 배는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과 수리아, 적도기네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가고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국제미싸일통제기술협약의 성원국도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런 날강도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세계의 면전에서 당당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목적한 항구에 입항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대홍》호검색문제를 놓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벌어지고있는 이번 대결은 배에 대한 검색을 받는가 안받는가, 미싸일을 실었는가 안실었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에 관한 정치적문제, 국제적성격을 띤 첨예한 싸움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의 도발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적들의 비행기와 함선들이 설치는 공해상에서 전파를 타고 날아온 조국의 지시를 받아안은 《대홍》호의 일군들과 선원들은 맞받아 싸우면 이긴다는 신심에 넘쳐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미국은 이란의 반다르아마스항으로 가는 인디아양상의 항로에 4척의 군함을, 페르샤만으로 들어가는 호르므즈해협에는 22척으로 편성된 함대를 전개해놓고 결정적인 검색태세를 취하는 한편 선체 150m상공에까지 비행기를 저공비행시키면서 배의 전진방향에 폭탄처럼 보이는 검은 물체들을 마구 투하하며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대홍》호의 선원들은 목숨바쳐 싸워서라도 배의 항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 비상한 각오로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람홍색공화국기는 바다바람에 붉은 기폭마냥 힘차게 나붓기고 《대홍》호는 단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목적한 항로를 따라 거침없이 전진했다.

당장 무슨 일을 칠듯이 오만하게 설쳐대던 도전자들은 정작 《대홍》호가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자 질겁하여 꼬리를 사리고말았다.

1척의 우리 나라 비무장무역선이 수십척의 무장함선과 비행대를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던것이다.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에 미국은 또다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말았다.

본사기자 박철남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거짓말

최근 남조선의 《민플러스》가 유엔총회에서 한 윤석열역도의 연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윤석열역도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연설에서 유엔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을 파견하여 남조선의 《자유를 수호》하였다고 떠든데 대해 유엔은 지난 조선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지 않은것은 물론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이 언급한 《유엔군》은 단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만든 련합군일뿐이다.

일부 사람들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조선전쟁직후 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유엔안보리) 결의(1950년 7월 7일)》를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의 기발을 도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실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군》을 창설할 권한이 없고 유엔총회에 그 권한이 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조선반도에 파견할 《유엔군》창설은 결정된바 없다. 오히려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의결하였다.

미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가 가결되자 당시 미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공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이 유엔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1994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의 산하조직으로서 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한적이 없으며 다만 미국의 주도하에 배치되여있다.》라고 하였고 1998년 유엔사무총장(당시) 역시 《유엔군》에 대해 《나의 전임자들 누구도 유엔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어떤 국가에 어떤 권한도 위임한적이 없다.》라고 밝히였다. 2004년과 2006년 유엔사무총장의 대변인(당시)은 《〈유엔군사령부〉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이다.》라고 확인하였다.

당시 미국 유엔대표부 부대사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2018년 9월 27일) 공식석상에서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유엔활동이나 조직이 아니고 유엔의 명령과 통제아래에 있는것도 아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것도 아니며 유엔의 예산을 통해 자금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무국사이에는 아무런 보고선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선전쟁당시 유엔은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파견하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가. 몰랐다면 무능한것이고 알았다면 거짓말한것이다.

윤석열이 혼자 연설문을 쓰지 않았을것만은 명백하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외교부 관계자들이 몰랐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도 유엔과 관련한 사항을 부디 유엔총회에서 말이다.

윤석열의 《유엔군》언급에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것이 분명하다.

남조선미국일본《3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미국에 《유엔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2003년 이라크침공당시 미군주도의 련합군정도로 위상이 전락되면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군을 《유엔군사령부》에 편입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더구나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다.

결국 남조선미국일본《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할 명분을 제공한것이 바로 윤석열이 유엔총회에서 거짓말을 한 리유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천하바보들의 대결광대극

윤석열역도가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과 각종 전쟁장비들을 모아놓고 벌린 이 대결광대극에서 역도는 《북이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조선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있다.》니,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니, 《북에 대한 남조선미국동맹의 압도적대응》이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유지》니,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이니 하고 줴쳐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는 희세의 저능아, 인간추물의 어리석고 가소로운 나발질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핵무기는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국가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거나 침해하지 않는한 누구도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해 위협을 느낄 하등의 리유도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핵무력을 걸고들며 피대를 돋구고있는것은 그들자신이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이러한자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목소리에 비린청을 합쳐 그 누구의 《위협》과 《비핵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언어도단이며 파렴치의 극치이다.

핵은 공화국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절대적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비핵화》의 개꿈을 꾸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대결정신병자들, 천하바보들이다.

더욱 가관은 그 무슨 《압도적대응》에 대해 떠드는 역적패당의 어처구니없는 객기이다.

재래식무기를 가진 중동과 아프리카의 비정규무력에게서조차 처참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여 쫓겨나지 않으면 안된 미국상전을 믿고 절대병기를 가진 초강대국과 맞서보겠다는것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역적패당의 허세성객기에 대해 《압도적대응? 그 순간 모든것이 끝장난다.》, 《이놈의 말가운데서 거짓말이 99%이기때문에 믿을수가 없다. 군대에도 나가지 못한 주제에 무슨 선제타격이 어쩌구… 개가 웃는다.》, 《압도적으로 얻어맞지 말고 좀 내려와라. 압도적으로 말아먹고있는것은 너다.》, 《네가 무슨 재주로 압도적대응을 한단 말인가. 제일먼저 도망치지나 말아라.》 등으로 야유조소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데 윤석열역도가 귀달린 벙어리가 아니라면 그에 대해 심고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역도가 구세주처럼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핵전략자산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들은 공화국의 핵무력앞에서 쓰다 버린 파철더미에 불과하며 역도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그 무슨 《한국형3축타격체계》란 《한국형3축자멸체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건대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이른바 《국군》의 간판밑에 미국의 대포밥, 총알받이들을 만들어놓은 입에 올리기조차 역스러운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해괴하고 낯뜨거운 망발로 세인을 웃긴 윤석열역도의 추태는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희대의 정치만화이다.

역도가 볼썽사나운 대결광대극으로 구겨질대로 구겨진 체면을 세우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부지하며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처럼 기괴한 망상은 없다.

반공화국대결로 얻을것이란 비참한 종말을 더욱 앞당기는것뿐이다.

하긴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 윤석열역도와 같은 속물, 얼간이가 이에 대해 알겠는지…

알고있다면 애당초 이번과 같은 망발질을 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김정혁

《윤석열차》에 비낀 민심

최근 남조선에서 알짜 정치무식쟁이, 추악한 부패범죄자, 우직한 폭군인 윤석열역도를 폭로야유하는 그림들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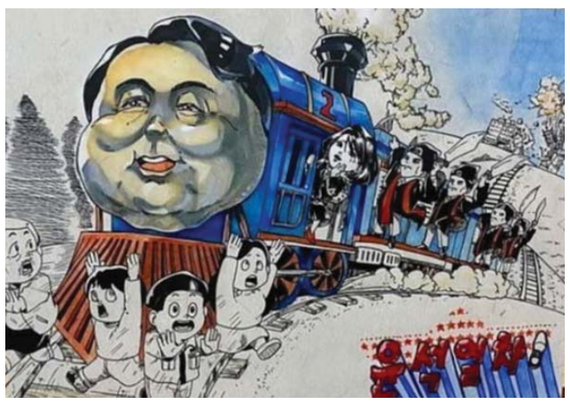
얼마전에 열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전남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제출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만화에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상한 증기기관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있다. 특히 만화는 기관사자리를 차지하고 렬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면서 호들갑을 떨고있는 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와 객실마다에 서슬푸른 칼을 뽑아들고 앉아 윽윽대는 검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한갖 녀편네의 조종을 받으며 민심에 역행하고있는 《검찰공화국》이라는것을 신랄히 폭로하고있다. 만화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여 금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부천에서 진행된 국제만화축전기간 만화박물관에 전시되여 널리 소개되고 인터네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악정에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담겨진 만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평가하듯이 그림에는 무지무능하고 우둔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역도의 역겨운 행적이 적라라하게 풍자되여있다.

역도가 미신에 빠진 녀편네 김건희의 앙탈질에 《청와대》를 《룡와대》로 옮기고 녀편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직원들을 선정하는 꼭두각시짓만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운영을 한답시고 한짓이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것이 아니라 칼잡이 검찰측근들을 내몰아 민주개혁세력을 탄압하고 저들 부부의 호화생활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가 하면 동족에 대한 《압도적대응》을 고아대며 침략전쟁연습에 발광하는것뿐이다.



역도의 행위가 얼마나 증오스러웠으면 남조선인터네트들에 《영빈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바꾸어야 한다.》, 《북에 대한 압도적대응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대응이나 잘해라.》와 같은 비난의 글들이 차고넘치고 고등학교 학생까지 역도를 비웃는 풍자만화를 그리였겠는가.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철면피하게도 《정치적주제를 로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느니, 《표절》이니, 《륜리범죄》니, 《엄중히 경고한다.》느니 하며 금상을 수여한 관계자들과 만화를 그린 학생을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을 전면파국에로 몰아가는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 분노를 담은 나어린 학생의 만화까지 두려워하며 폭압의 칼을 빼드는 윤석열역도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깡패이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민심이 비난하든, 세상사람들이 욕하든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악한짓만을 골라 해대는 윤석열역도에게 차례질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자멸을 재촉하는 《3자공조》책동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 일본것들과의 《3자공조》놀음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9월에 들어와 일본 도꾜에서 남조선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협의회》를 개최하고 《3자공조》강화를 모의한데 이어 미국 뉴욕에서 남조선미국일본《외교장관회의》와 미국, 일본것들과 각각 《북핵수석대표》전화협의 등을 벌려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역적패당은 이 모의판들에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과거와 다른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억제력강화를 위한 〈한〉미일협력을 강화하겠다.》, 《3자간 긴밀한 협력밑에 북의 핵무기사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떠들었다.

미일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정책은 총파산의 위기에 처하였다.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함으로써 그 무슨 《북비핵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윤석열역도의 《담대한 구상》은 휴지장이 되여버렸고 남조선내에서는 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북의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헛된 꿈을 꾸고있는 윤석열, 제발 허튼 망상으로 힘쓰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이다. 지어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전문가들까지도 《핵보유국인 북에 대해 비핵화의 기본단계를 밟는 대가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상기할 필요도 없이 아무 쓸모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이를 반복하기보다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아둔한 머리를 굴리다 못해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그대로 옮겨베낀 《담대한 구상》이라는 얼빠진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넝마짝이 되여버리고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앞에서 미친듯이 벌리던 전쟁대결책동 역시 가을날의 락엽처럼 되여버린데 당황망조한 윤석열역적패당은 미일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미국, 일본과의 《3자공조》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앞에 혼비백산한 자들의 허세성객기에 불과하다. 썩은 닭알이 아무리 많아도 바위를 깰수 없듯이 락조가 비낀 미국과 섬나라것들을 하내비처럼 믿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서로 《3자공조》를 떠들며 반공화국결탁에 아무리 매달려도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수도,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할수도 없다.

공화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대국이다.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는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머지않아 범죄적인 《3자공조》놀음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것이다. 그것은 곧 역적패당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영영 묻히는 비참한 종말의 순간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대결을 불러 자멸이 온다

김태룡

《국군의 날》기념식 요란스레 벌려놓고
그 무대에 광대로 나선 윤석열
세상을 또 한번 되게 웃기고싶었던게지
허세로 가득찬 역도의 《기념사》는
역시 천치만이 엮을 《걸작》이로구나

되돌릴수 없는 우리의 핵무력정책의 법화
세살 난 아이도 아는 이 리치
허나 한사코 우겨대는 《북비핵화》타령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생주정인지
소뿔우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하누나

신물나는 망언에 진저리가 나는데
《압도적대응》은 또 무슨 객기냐
섶지고 불속에 뛰여들겠다는
그 《대응》은 네겐 호기일지는 몰라도
민심의 대응은 바보에겐 약이 없다는것

아무리 광대극이라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오죽하면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혀
세간에 비난과 조소 죽가마 끓듯 하겠냐
뚜껑없는 항아리같은 그 입을 꿰매라
한결같이 저주의 항변을 터치고 있겠냐

가는 곳마다 구설에 오르는 역도
스스로 뭇매벌이를 청하는 저능아
광대끈 떨어진 가련한 그 주제에
그 누구의 《위협》과 《자멸》을 론하지 말고
파멸을 눈앞에 둔 제 처지나 한탄해라

죽을둥살둥 모르고 설쳐대는
역도의 《기념사》는 추악한 《대결사》
아무리 피대를 돋구어 추태를 부려도
그것은 한날 멸망을 눈앞에 둔
더러운 추물의 단말마일뿐

주절주절 쏟아놓는 망언이 늘어날수록
알아둬라 네 명만 줄어든다는것을
차라리 너때문에 죽음을 당할
《국군》의 추도사나 준비해두는게 어떨런지
하기야 그것마저 읊조릴 기회 있겠냐
장송곡도 없이 졸지에 망해버릴 네 운명인데

단평 《완벽한 대응태세》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또 하나의 희비극을 빚어내 세상사람들을 웃기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질겁한 역적패당은 이에 대응한다면서 지상대지상탄도미싸일을 조선동해쪽으로 발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싸일이 발사직후 목표로 정한 곳으로가 아니라 발사장주변에 떨어져 대화재를 일으켰다.

한밤중에 터진 폭음과 화재로 밤새 공포에 시달린 주변지역 사람들이 이 광경을 인터네트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윤석열역적패당은 더욱 궁색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가리워보려고 《첨단무기》, 《자주강군》을 떠들며 광기어린 대결폭언을 내뱉던 윤석열역적패당의 허장성세가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난셈이다.

이번에 오동작한 지상대지상탄도미싸일로 말하면 역적패당이 《첨단기술》을 적용한것이라고 요란히 광고하던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자랑하던 《첨단미싸일》이 제 머리에 떨어져 불바다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가관인가.

그런데도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국군의 날》행사라는데서 이따위 미싸일을 내놓고 으시대며 제법 주먹을 흔들고 목대에 힘을 주었으니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부지깽이보다 못한 오작병쟁기들을 비껴들고 흰소리를 치는 역적패당을 두고 《울타리안에서 짖어대는 똥개》라고 조소하고 있는것은 응당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완벽한 군사적대응태세》란 바로 이런것이다.

이번 희비극을 놓고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대결책동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거기에 제발로 걸어들어가는 자멸적망동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고있다.

김영춘

《혈세먹는 하마》

얼마전 남조선《국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의 래년도예산안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대통령실》을 꾸린다며 요구한 막대한 자금항목이 발각되여 각계층의 비난과 분노가 높아지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역적패당은 룡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각종 수화물들을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서 170여만US$, 청와대로부터 룡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1주년기념식》에 쓴다면서 근 36만US$, 《국민개방홈페지》를 제작한다면서 28만여US$를 책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실》바닥에 까는 주단을 새로 제작하고 기록물보관을 위한 차량을 빌리는데도 근 6만여US$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실》의 인터네트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350여만US$를 배정했다고 한다.

최악의 민생위기와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치부와 향락에만 미쳐돌아가는 역적패당의 추악한 본색을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낸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룡산으로 이전한것이 미신에 빠진 녀편네의 《조언》때문이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의 막막하고 답답한 형세와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으로 청와대에 들어앉은 력대 《대통령》들의 운명이 기구할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에 기겁한 역도는 엄청난 혈세를 뿌려대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룡산으로 옮겼다.

또한 자기와 녀편네가 들어가 살 주택을 재시공하는데만도 2 558만US$를 들이밀었다.

이것도 모자라 역적패당은 태풍과 큰물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새 《영빈관》을 지어야 한다며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비난이 고조되자 바빠맞은 역도는 속에 없는 사죄놀음을 벌리며 《영빈관》건설계획을 급기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을 현대화한다면서 또다시 수백만US$의 자금을 쓰겠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역도의 본태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다.

현실은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느니,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니 하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의 언동질이 순전히 민심을 유혹하고 인민을 등진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이고 위선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은 혈세먹는 하마》, 《영빈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바꾸어야 한다.》, 《김건희의 꼭두각시인 윤석열에게는 탄핵이 답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윤석열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인민을 등지고 일신의 부귀와 안일만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밖에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지금 그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퇴진 안하면 탄핵한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에 앞장서고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북도, 부산시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대학들에는 《절망뿐인 윤석열〈정부〉 이대로 두겠습니까?》, 《모든것을 망친 윤석열의 100일!》과 같은 대형벽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나붙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도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초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투쟁이 매주 정기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투쟁형식과 내용, 방법도 《시국성명》발표, 윤석열규탄기자회견, 윤석열죄행성토모임, 윤석열과 그의 녀편네를 규탄하는 대형구호게시, 시민초불투쟁, 윤석열역도의 체포상황극공연 등 날이 감에 따라 다양해지고있다.

특히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이제는 윤석열퇴진이 아니라 탄핵이다.》, 《올해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제2의 초불혁명이 시작되였다.》고 웨치면서 반《정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윤석열역도의 퇴진투쟁은 이전 보수《정권》도 무색케 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로 남조선을 파국의 소용돌이속에 밀어넣고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역도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분노의 분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공정과 상식》의 간판을 들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자기의 심복들과 녀편네의 측근, 친인척들을 등용하고 군사파쑈독재시대를 전면부활시키는데로 나갔으며 친재벌정책, 특권층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민생을 도탄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았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가고있다.

이런자를 그대로 둔다면 더욱 참담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이 내린 판단이고 평가이다.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윤석열역도의 퇴진, 탄핵투쟁은 민심이 이미 역도에게 파멸을 선고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황금숙

진귀한 꽃제품들의 품종을 늘여간다

— 평양화초연구소에서 —

공화국의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여러가지 화초를 사철 생산보장할수 있는 재배체계를 세우고 화초재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꽃이 아름답고 피여있는 기간이 오래며 생활력이 강한 품종들을 육종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국내의 조건에 맞게 풍토순화시켜 170가지의 새 품종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섞붙임, 유전자전이의 방법으로 이름난 꽃관상화초들의 새로운 품종들을 육종하였다.

새로 꾸려진 무난방온실조건에 맞는 화초재배체계를 확립한 이곳 연구사들은 여러가지 진귀한 꽃들을 생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여러가지 품종의 장미를 국내의 기후조건에 맞게 순응시키고 겨울철에도 장미를 재배할수 있는 영양액재배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새로운 생물농약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요구에 맞게 선인장의 관상효과를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어 접재배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수십종에 달하는 색과 형태가 다양한 선인장품종도 키워냈다.

한편 여러가지 꽃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말린꽃제작소의 연구사들은 화초의 자연적미를 그대로 살릴수 있게 말린꽃의 선도보존기술을 확립하고 제품의 가지수를 보다 풍부히 하고있다.

화초연구와 재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이곳 연구사들의 노력에 의해 곳곳에 아름다운 꽃풍경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봉화화학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박사 김추남

로력영웅이며 박사인 김추남 봉화화학공장 지배인은 접촉분해장치와 페가스연소공정의 점화조종체계 등 의의가 큰 여러건의 발명을 하여 중요화학제품들의 가공률과 질을 높이고 규모가 큰 접촉분해공정을 확립함으로써 해마다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또한 주체적관점에서 전극점결제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리가 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김추남 지배인은 지난해에 제정된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선남들이 내린다는

이선남폭포

이선남폭포는 천하절승으로 이름난 묘향산의 천태동에 있다.

이 폭포는 보통때에는 의좋은 형제처럼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므로 지난 시기에는 형제폭포로 불리워왔다.

주체70(1981)년 5월 천태동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곳 등산길을 새로 확정해주시면서 형제폭포를 《**이선남폭포**》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이때부터 형제폭포를 이선남폭포로 고쳐 부르게 되였다.

이선남폭포는 해발 1 599m되는 향로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지질시대의 지각운동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화강암절벽으로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진다.

폭포의 높이는 22m이며 너비는 각각 6~10m, 4~8m이다.

폭포는 경사진 바위를 따라 떨어지다가 바위턱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한다.

그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깊게 패인 깊이 3m나 되는 소가 있다.

소에 찼던 물은 넓게 가로질러간 암반우를 미끄러져내려 다시 그밑에 형성된 두번째 소에 찼다가 계곡을 따라 유유히 흘러내린다.

장마철이 되면 두줄기의 물줄기는 합쳐져 바위벼랑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이게 된다.

두줄기의 물줄기가 서로 힘을 겨루듯이 기운차게 떨어지는 이선남폭포는 생김새가 기묘하고 아름다와 이곳 일대의 자연풍치를 한껏 돋구어줄뿐 아니라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림원십륙지》

《림원십륙지》는 1825년에 서유구(1764년—1845년)가 경제 및 문화관계의 문헌자료들을 부문별로 정리해놓은 민족고전이다.

미완성초고로 전하는 책은 분량상 113권 62책에 달하는데 이것만 놓고서도 저자가 얼마나 방대한 책을 구상하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모두 16개의 지로 되여있는 《림원십륙지》는 무려 500여종의 국내외문헌들에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가치있는 내용들을 뽑아 분야별로 수록하고 해당 출처와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였다.

제일 앞부분인 본리지와 관규지는 농업부분으로서 저자는 농사의 성과여부는 자연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농사일반과 33종의 남새류와 20여종의 약초류재배, 가공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원예편에 해당한 예원지와 만학지에서는 50여종의 꽃과 30여종의 관상용풀, 30종의 과일과 여러 수종의 나무, 차와 담배 등의 재배방법 지어 꽃색갈을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림원십륙지》는 나라의 경제와 문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저자의 지향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후반기의 사회경제적형편과 음식문화, 생활풍습 등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수록한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로 된다.

본사기자

세계비물질문화유산

조선민족씨름

씨름은 두사람이 다리에 낀 살바나 허리에 댄 띠를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이다.

씨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선조들의 로동생활과정에 발생한 운동종목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방법이 부단히 변화발전하여왔다.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때의 쉴참에 밭머리나 강가의 모래판 혹은 잔디밭에서 씨름판을 벌리군 하였다.

씨름은 지방별로 풍습과 취미에 따라 그 형식에서 약간한 차이는 있었으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상씨름, 중씨름, 애기씨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씨름경기에는 다양한 기술수법들이 있다.

흔히 적용되는 다리수법들인 호미걸이, 안걸이, 무릎걸이, 빗장걸이, 발치기가 있으며 손수법들인 무릎치기, 발목치기, 팔걸이, 다리당기기와 몸통수법들인 궁둥배지기, 들배지기, 돌림배지기, 동이배지기, 뒤집기, 접치기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세부동작수법들을 포함하면 수없이 많다.

씨름경기장은 깔개씨름장과 모래씨름장을 리용하고있다.

깔개씨름장은 한변의 길이가 12m 되는 정방형마루우에 푹신한 깔개를 편 다음 그우에 길이가 8m 되게 10cm의 너비로 측선을 긋고 가운데에 직경이 2m 되는 원을 그려 만든다.

모래씨름장은 내경 8m, 깊이 20cm정도로 땅을 파고 그안에 모래를 두께가 30cm이상 되게 편 다음 둘레로부터 1m밖에 1cm의 너비로 흰선을 그어 안전구역을 표식한다.

씨름경기는 조건과 시간, 장소 및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대중화할수 있는 흥미있는 민족체육경기종목으로서 사람들의 힘과 인내력, 용감성과 투지를 키워줄수 있게 하여준다.

지난 9월초 공화국의 풍치수려한 릉라도에서는 씨름애호가들과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1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기상과민증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몸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현대의료기상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상과민증이라고 부른다.

기상과민증은 주로 정신이 집중되지 않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맥이 없으면서 피곤하거나 우울해지며 머리가 어지럽거나 메스꺼운것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잠이 잘 오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는것 등으로도 표현된다.

의료기상학전문가들은 가을철이 기상조건의 변화가 매우 큰 계절이라는데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있다.

우선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기온과 습도가 떨어지고 기압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체세포의 산소섭취량에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불면증, 머리아픔 등의 기상과민증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기체의 생리적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가을철은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엇갈리면서 불고 기상요소의 변화가 심하다는것이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날씨변화에 대한 생리적균형유지능력을 높여야 한다.

본사기자

민족료리

추어탕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추어탕을 만들어 먹었다.

미꾸라지에는 트립토판,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질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등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 B_2은 동물의 간보다 더 많이 들어있으며 철분은 시금치보다 더 많다.

추어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미꾸라지 150g일 때 소고기 50g, 두부 40g, 미나리 20g, 풋고추 30g, 쑥갓 20g, 고추장 10g, 된장 15g, 소금 20g, 생강 5g, 기름 15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0.2g, 맛내기 0.2g, 료리용술 10g 등을 준비한다.

생강은 얇은 편으로 썰고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놓는다.

소고기는 잘게 다지고 두부는 길이 3㎝, 너비 2㎝, 두께 0.5㎝되게 썰어놓는다.

끓는 연한 소금물에 절반량의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소끔 끓여 양념물을 만든다.

여기에 깨끗이 씻어 썰어놓은 미꾸라지를 넣어 데쳐낸다.

달군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나머지 생강편과 파토막을 두고 볶다가 향기가 나면 다진 소고기를 두고 볶는다.

여기에 미꾸라지를 넣고 같이 볶다가 술을 약간 치고 물을 미꾸라지의 3배정도 되게 부어 1시간 30분정도 푹 끓인다.

미꾸라지가 푹 무르면 된장과 고추장, 두부, 쑥갓, 미나리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송송 썬 풋고추와 파, 다진 마늘, 맛내기, 후추가루를 넣어 맛을 들인 다음 탕그릇에 담는다.

본사기자

사화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2)

글 문병우, 그림 채대성

최무선은 곧 화약의 유리성을 봉건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화약과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어 왜적을 쳐부실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무능한 일부 관리들은 어리석게도 최무선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이웃나라에서 절대비밀에 붙이고있는 그 제조방법을 어떻게 알고 만들어낸단. 나라를 속이려는노릇이지.》

최무선은 화약의 폭발로써 그 위력을 시위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키였다.

이때 화약무기의 제작과 그것을 장치할수 있는 견고한 함선제조에 적극 도와나선 사람은 최영장군이였다.

북방의 적과 왜구와의 수십차례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온 로장 최영은 북방의 적을 막는데는 산성이 필요하며 왜적을 치는데는 전함이 제일이라는것을 실전을 통하여 통절히 느끼고있던터였다.

최무선이 화약제조에 성공한 1373년에 그가 륙도도순찰사가 되자 곧 전함의 건조에 착수하여 마침내 수백척을 진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낸 해와 최영이 대함대를 건조하려고 한 해가 일치한것은 우연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1377년 화약과 화약무기를 다량 제조하기 위하여 화통도감을 설치하자는 최무선의 제안이 성취되여 대장군포, 이장군포 등 각종 화포와 철령전, 류화, 주화 등 여러 종류의 포탄을 만들어내는데서도 또한 최영의 지지와 원조가 컸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일개인의 발명이나 창안도 그것이 국가적, 사회적재력의 뒤받침이 없이는 그 빛을 내지 못하는것이니 하물며 무기류와 같이 인력, 재력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것이다.

최무선이 다시 전함에 대포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자 최영장군은 지체없이 백성들과 승도를 동원하여 1379년 한해동안에 이러한 큰 군함 130여척을 건조하여 례성강구에 배치하였다.

1380년 4월 최영이 해도도통사가 되여 전국의 수군을 총지휘하게 되면서 화약무기로 장비한 전함을 실전에 시험해보려고 벼르고있던터였다.

그러던중 왜구가 수백척의 대선단을 끌고 들어와 금강하구에 배를 댄 후 전라도의 여러 주, 군을 로략질하고있다는 급보에 접하여 고려수군은 급히 출동하게 되였다.

1380년 8월 수천명의 수군을 실은 100여척의 고려함대는 례성강구를 떠나 남으로 달리였다. 군사들은 기어이 왜적을 쳐부시고야말려는 의기충천한 기세로 가슴 불태우며 이마에 솟은 땀도 들일 겨를없이 더욱 부지런히 노질을 하였다.

정연한 기치들이 숲을 이루고 전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가운데 제일 큰 루선에서 배머리좌우편의 화포를 쓰다듬고있는 장수가 이번 원정의 부원수 최무선이였다.

검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쾌속도로 나아가는 배들의 속력은 점점 빨라져 목적지인 전라도 진포에 접근하게 되자 최무선의 미간에는 류달리 심각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것은 최무선이 다년간 고심끝에 만든 화약무기를 처음 사용하게 된 왜구격멸의 시각이 각일각 다가오고있기 때문이였다.

왜구들은 진포구에 배를 대고 륙지에 올라 곡식을 략취하여 배에 싣고있었다.

크고작은 여러척의 배를 굵은 바줄로 묶어 풍랑에 견디도록 하였는데 그 총수는 무려 500여척이나 되였다.

고려의 함선들은 왜적의 배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일대 섬멸전을 앞둔 바다는 아직 잠잠하였다.

바람은 잦고 물결은 잔잔한데 날씨조차 청명하였다.

왜적들은 고려군의 병세가 약한것을 보고 일제히 배에 올라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100여척의 고려함대와 500여척의 왜적함선간의 전투는 드디여 개시되였다.

놈들은 여러척씩 묶은 선단을 끌고 나와 고려함대를 포위하려고 하였다.

고려함선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렬한 화포사격을 들이댔다.

철탄자와 철령전이 적선의 돛대와 갑판을 박살내고 화전과 주화가 불을 뿜으며 적선에 명중되자 배들에는 일시에 불이 붙어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은 온 하늘을 뒤덮었다.

튼튼한 바줄로 련쇄된 적선들은 도저히 빠져나갈수 없어 좌왕우왕 일대 혼란에 빠져 모대기고 거기에 적들은 불에 타죽지 않으면 물에 빠져죽은자가 태반이였다.

사세가 급함을 본 왜적들은 돌연히 배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기다리던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적선을 향하여 총돌격을 개시하였다.

용감한 고려수군들은 비호같이 적선에 뛰여올라 복수의 장검을 휘둘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이리하여 500여척의 적선은 크게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약무기앞에 여지없이 격멸되고말았다.

고려수군은 왜적들이 붙잡아 가두었던 330여명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였으며 수많은 적의 병쟁기를 로획하고 개선하였다.

이것이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써서 왜구를 격멸소탕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였다.

(끝)

속담과 뜻

❖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

귀여운 자식일수록 잘못을 눈감아버리지 말고 요구성을 높여 엄하게 키워야 함을 이르는 말.

❖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웃어른, 웃사람이 대를 세워 엄하게 굴지 않으면 손아래사람들이 버릇없이 제멋대로 행동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우는 아이 젖준다.

자기에게 응당 차례지겠거니 하고 믿고있다가는 놓칠수 있으므로 어떤 일에서나 자기가 요구해야 할것은 요구해야 구할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